

시조창 분류고

신 응 순*

<국문초록>

본고는 음악상으로서의 시조 분류이다. 잣수에 의한 문학상 분류와는 달리 시조창은 선율에 따라 달라진다. 문학상으로는 단시조·중시조·장시조의 분류가 일반적이거나 시조창은 평시조·지름시조·사설시조로의 분류가 일반적이다.

같은 시조창이면서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종류이면서 같은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시조창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에 놓여있다. 몇몇 국악인들에 의해 시도는 되고 있으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의 빈다한 명칭들을 정리하고 시조의 분류 체계를 세우고자하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필자는 고악보와 현행 시조보, 기존 이론을 검토, 평시조 계열·지름시조 계열·사설시조 계열로 일단 3대별하고 여기에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시조창들이 어떤 계열에 속하는 것인가를 몇가지 원칙에 의해 분류해보았다.

필자가 조사한 현행 시조 명칭 67가지를 필요한 16개의 명칭으로 줄여 분류했다. 이는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명칭들이 같은 시조이면서 표음이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시조이면서 같은 명칭으로 불리워지는 것들도 있다. 이의 복잡, 빈다함을 피하기 위해 문학과 음악상의 개념을 고려, 일부 용어들을 정리했다.

- 1) 평시조 계열 : 평시조, 중허리 시조, 우조시조, 파연곡
- 2) 지름시조 계열: 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반지름시조, 온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휘몰이 시조
- 3) 사설시조 계열 : 사설시조, 반사설시조, 각시조, 줌는 평시조

* 중부대

아직도 배자, 형태, 음계, 타장르와의 영향 관계 등 적지 않은 음악상의 작업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이론 축척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음악적인 부분들은 전문가, 국악인들의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차후의 논문을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핵심어 : 시조창,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

I. 서론

시조는 음악과 문학이 하나였다. 창을 하면 그것이 음악이었고 문학이었다. 그러던 것이 1920년대 시조부흥 운동으로 창은 창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갈 길을 갔다.¹⁾ 작금에 와 시조는 하나는 음악 장르로 또 하나는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 됨으로써 그 분류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본고는 음악상으로서의 시조 분류이다. 문학에²⁾ 비해 음악상의 시조

1) 프로 문학에 대항하여 국민문학파는 현대시조창작 운동을 제시했다.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 동광사), <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조선문단, 16호, 1926. 5), 이병기의 <시조에 관하여>(조선일보, 1926.12.6), <시조와 민요>(동아일보, 1927.4.30), 조운의 <병인년과 시조>(조선일보, 1927.2) 등에서의 공통된 주장은 과거와 같이 악곡의 창사로서 존재하는 시조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적 특성과 민족적 리듬이 응결된 단시 형식으로서의 시조가 가지는 중요성과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어국문학사전(한국사전 연구사, 2002), 1723쪽.

2) 문학상의 시조의 분류는 명칭 문제와 관련되어 평시조(단시조), 엇시조(중시조), 사설시조(장시조) 등 3분류와 평시조(단시조), 사설시조(장시조)의 등 2분류가 주이다. 전자의 연구로는 이병기, 리태극, 김대행, 김종직, 김사엽, 진동혁, 원용문 등이 있고 후자의 연구로는 최동원, 고정옥 등이 있다.

신용순, 『현대시조시학』(문경출판사, 2001), 84-85쪽.

위의 연구로 신용순의 장별 분류로 단장, 양장, 삼장시조, 연삼장시조 등으로 분류, 삼장 시조를 단시조, 중시조, 장시조로, 연 삼장시조는 연 단시조와 혼합

분류는 아직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국악인들에 의해 시도³⁾는 되었으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논증 없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시조창은 크게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평시조는 시조의 원형으로 평평하게 부르며 지름시조는 평시조에서 첫 파생된 시조⁵⁾로 초장은 높은 음으로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창으로 부른다. 사설시조는 향제에서 불렀던 시조로 음은 평평하나 리듬을 촘촘히 엮어서 부른다.

작금에 와 경제, 향제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특히 향제에서 내포제⁶⁾, 완제, 영제⁷⁾의 구분이 명확치 못해 이에 대한 분류는 현실적으로 어려

시조 등으로 나누어 현재 창작되고 있는 모든 시조들을 포괄하여 정리한 연구도 있다.

신용순, 『시조분류고』(한국문예비평학회 제15집, 2004), 165쪽.

- 3) 이왕직아악부 편 조선아악대요, 함화진 편 증보가곡원류, 하규일, 임기준, 최상욱, 이주환, 김호성, 이정주, 정경태, 국악보, 증보주해 시조보, 문현의 음악으로 알아보는 시조 등의 시조 분류들이 있다.
- 4) 시조 분류는 시조연구가들에 따라 상이한 분류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평시조와 평시조의 파생인 지름시조와 지름시조의 파생인 사설시조로 분류되어 이 3자가 시조의 중심이 되었는데……
구분혁, 『시조가악론』(정민사, 1988), 27쪽.
평시조, 지름시조 및 사설시조를 삼대시조로 꼽을 만큼 중요한 시조이다.
문현, 『음악으로 알아보는 시조』(민속원, 2004), 392쪽.
- 5) 고종 원년(1864년) 삼죽금보에 이르러 현행 지름시조인 소이시조가 생겼다.
- 6) 충청도의 창제는 다시 공주, 청양을 중심한 내륙지방을 외포와 서산, 당진 등의 해안에 인접한 지역을 내포로 각각 구분지어 불렀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 두 지역간의 창제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내포지방 중 서산지역에서 전승되었던 창제는 따로이 서판 시조로 불렀다고하는데 이에 대한 창제도 거의 전승이 단절되어 있다. 현재 내포제 시조는 충남 부여지방에서도 지방 문화재로 지정받아 전하고 있다.
문현, 앞의 책, 390쪽.
- 7) 현재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영제 시조는 경상도 말투에서처럼 너무 깨끗하여 멋이 좀 적고 경제 시조는 부드럽고 명랑하여 멋은 있으나 단단한 맛이 적어서 절장보단하여 부드럽고 명랑한 부분과 깨끗한 영제의 부분을

운 점이 많다. 경제는 전문가나 전공자들에 의해, 향제 중 완제(석암제)는 많은 일반 대중들에 의해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같은 시조라도 지방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해도 근본적인 틀이 같기 때문에 경제나 향제 같은 시조를 또 다른 종류로 세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시조창의 분류는 경제·향제 구분 없이 시조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악보와 현재까지의 시조창 분류를 재검토하여 시조의 연혁과 특성을 살펴보고 시조가 어디에서 파생되었고 가곡과의 영향 관계는 어떤지 그 발전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역대 시조 자료를 재검토하여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의 줄기를 세우고 동시조의 이명칭과 이표음 등을 검토하여 현 시조창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II. 본론

1. 고악보상의 분류

고시조 악보에 나타난 시조창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예지 : 時調

구라철사금보 : 時調

삼죽금보 : 時調, 騷耳詩調, 巫女詩調

취합한 것이 반영제시조이다. '은령판'이란 이 반영시조에 대하여 순수 영판을 일컫는다. 이 반영시조는 실은 석암제의 모체가 되어, 현재 이 창체가 전국을 통일하다시피 했다. 석암제 시조는 '완제시조'라는 명칭으로 전북과 광주에서 각각 도와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위의 책, 390쪽, 1

장금신보 : 時節歌, 上淸
 이보형 소장 양금보 : 時調長短, 三章時調
 서금보 : 時調長短, 三章時立, 平調時調 女音也, 平調三章 時調 女音也
 아양금보 : 시쥬갈락, 질은 시쥬갈악, 사쥬역난갈악, 시쥬여창
 방산한씨금보 : 時節歌
 여창가요록 : 시조책
 금고보 : 時調
 동대울보 : 시조넘
 기묘금보 : 時調, 末章徵高

시조는 『유예지』와 『구라철사금보』에 전하는 것이 가장 오래이다. 현재의 경제 평시조의 원형이다. 『삼죽금보』에 와 현행 지름시조인 소이시조가 생겼다. 위 악보들은 평시조와 지름시조의 형태를 보여준다. 지름시조가 시조에서 제일 먼저 파생되어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예지』, 『구라철사금보』의 '시조', 『삼죽금보』의 시조, 『장금신보』의 '시절가', 『방산한씨금보』의 '시절가', 『아양금보』의 '시쥬갈락', 『기묘금보』의 '시조' 등은 평시조에 해당되고 『이보형소장 양금보』의 '삼장시조', 『서금보』의 '삼장시립', 『장금신보』의 '上淸', 『아양금보』의 '질은 시쥬갈악', 『기묘금보』의 '末章徵高'는 지름시조에 해당된다.⁸⁾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시조: 시조, 시절가, 시쥬갈락
 지름시조 : 소이시조, 삼장시조, 삼장시립, 상청, 질은 시쥬갈악, 말장징고

최초의 악보 서유거의 『유예지』는 영조 때 편찬했다. 1800년 경이다. 그 후 『삼죽금보』에 지금의 지름시조인 소이시조가 생겼다. 『삼죽금보』 간행 연대는 1864년 고종 원년으로 추정된다. 『삼죽금보』는 가곡과 같이 5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시조가 가곡에서 파생되었음을 보여주는

8) 정춘자, "시조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4호, 138쪽.

일예이다. 현 지름시조인 소이시조는 『삼죽금보』에 처음 보인다. 이후에 시조가 소이시조와 구별하기 위하여 평시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평시조라는 명칭은 『가곡원류』이후 평거의 영향을 받아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1800년 경에 평시조가 처음 생겼고 1864년 경 지름시조가 생겼다. 역시 지름시조가 실린 『기묘금보』는 1879년 고종 16년으로 추정된다.⁹⁾

기록상으로 보면 1879년 이전에는 현행의 평시조와 지름시조 밖에 생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기록상으로는 나머지 시조들은 그 이후에 생겨났다. 이 시기까지 일단의 평시조와 지름시조의 두 줄기가 형성되었다. 이 때 사실 시조는 악보는 보이지 않았다.

고악보에서 산출한 시조의 두 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평시조 발생 →

1800년 경
유예지, 구라철사금보

지름시조 발생 →

1864년 1879년
삼죽금보 기묘금보

2. 기존 시조 분류 실태

최초의 시조 악보는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유예지』(遊藝志)와 이규경(李圭景, 1788-?)의 『구라철사금보』(區邏鐵絲琴譜)이다. 이와 더불어 『三竹琴譜』, 『峨洋琴譜』 등의 악보들은 현행 경제 평시조에 해당된다.¹⁰⁾ 시조창의 원형이 경제 시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1774년 석북의 《石北集》 卷之十 「關西樂府」 其十五에 ‘一般時調排長短 來自長安李世春’의 시귀가 있다. 시조의 장단 배열이

9) 이준자, 『기묘금보의 가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미간행, 1985), 정춘자, “시조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4호, 133쪽에서 재인용.

10) 김호성, 『시조창 100선』(수서원, 2002), 17쪽.

장안의 이세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시조창이라면 서울(경인)지역의 시조창이 경제시조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면 시조창은 서울에서 발생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제 시조가 각 지방으로 퍼져 경상도 중심의 영제, 전라도 중심의 완제, 충청도 중심의 내포제 등의 향제 시조로 번져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언어에도 지방에 따라 방언이 있듯 시조도 경제를 중심으로 각 지방의 심성에 따라 약간의 음색과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에 와서 사람에 따라 그 체계를 세우는 방법이 각기 다르고 그 구분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시조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고 같은 곡이면서 이름을 달리 쓰이는 경우도 있어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체계를 세우기란 그리 쉽지 않다.

기존의 이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 편 조선아악대요(朝鮮雅樂大要)¹¹⁾
 평시조(평거시조)
 중허리시조(중거시조)
 지름시조(삼수시조)
- 2) 함화진 편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¹²⁾
 중거시조(中學時調)
 평거시조(平舉時調)
 삼수시조(三數時調)
 농시조(弄時調)
- 3) 하규일¹³⁾
 평시조
 중허리시조
 지름시조
 여창 지름시조

11) 장사훈, 『시조음악론』(1986, 서울대출판부), 21쪽.

12) 위의 책, 21쪽.

13) 위의 책, 21쪽.

- 4) 임기준¹⁴⁾
 평시조
 중허리시조
 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우조지름시조 포함)
 수잡가
- 5) 홍원기¹⁵⁾
 평시조
 중거시조
 우조시조
 반사설시조
 사설시조
 평지름시조
 중거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 6) 이주환¹⁶⁾
- | | | |
|--------|----------------------|--------------------------|
| | 중허리시조 | |
| 평시조→ | 향제평시조 | |
| ↓ | 우조시조 | |
| | 여창지름시조 | |
| 평지름시조→ | 사설지름시조 | |
| | 우조지름시조 | |
| | 휘모리시조(푸른산중에, 창을 내고자) | |
| | 반사설시조 | |
| 사설시조→ | 휘모리(잡가) | 곰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생매잡아 |
- 7) 김호성 시조창 100선¹⁷⁾

14) 위의 책, 21쪽.
 15) 홍원기, 『남녀창가곡보』(민속원, 2001), 199-202쪽.
 16) 이주환, 『시조창의 연구』(1963, 시조연구회), 7쪽.
 17) 김호성, 앞의 책.

- 평시조
- 남창지름시조
- 여창지름시조
- 우조평시조
- 우조지름시조
- 반각시조
- 각시조
- 중허리시조
- 반사설시조
- 사설시조
- 사설지름시조
- 엮음지름시조
- 8) 이양교¹⁸⁾
- 평시조
- 지름시조
- 사설지름시조
- 사설시조
- 반사설시조
- 9) 김기수¹⁹⁾
- 평시조
- 중허리시조
- 중거지름시조
- 우조시조
- 우조지름시조
- 지름시조
- 여창지름시조
- 사설시조
- 사설지름시조
- 각시조

18) 이양교는 충남 서산 사람으로 서산에서 이문교, 유병익 선생님께 사사하였고 서울에 올라와 유병철, 조을봉, 최병제, 이계석 선생님들께 사사했다. 여기서 경제 시조를 배웠다.

이양교 편저, 『시조창보』(현대문학사, 1994), 12-16쪽.

19) 김기수 편저, 『정가집』(은하출판사, 1990)

- 온지름시조
- 반각시조
- 반사설시조
- 휘모리시조
- 10) 김경배²⁰⁾
 - 평시조
 - 중허리시조
 - 지름시조
 - 사설시조
 - 사설지름시조
 - 여창지름시조
 - 우조시조
 - 우조지름시조
 - 휘모리시조
- 11) 리태극²¹⁾
 - 경제-평시조
 - 중허리시조
 - 지름시조
 - 여창지름시조
 - 사설지름시조(농시조)
 - 수잡가(반시조반잡가)
 - 휘모리시조(쥬음)
 - 영제-평시조
 - 사설시조
 - 완제-평시조
 - 사설시조
- 12) 김귀식²²⁾
 - 평시조
 - 사설시조
 - 반사설시조
 - 여창절음시조

20) 김경배, 『시조약보』(월하문화재단, 1988)

21) 리태극, 『시조개론』(1992, 반도출판사), 76-77쪽

22) 김귀식, 『알기쉬운시조창』(집문당, 2000)

- 남창평지름시조
- 남창지름시조
- 중거시조
- 사설질음시조
- 각시조
- 우평시조 · 우조질음시조
- 시창
- 13) 유세기²³⁾
 - 지름시조
 - 중어리시조
 - 옛시조
 - 사설시조
- 14) 이연주 시조직해²⁴⁾
 - 평시조
 - 사설시조
 - 지름시조
 - 반사설시조
 - 언시조
 - 각시조
- 15) 정경태²⁵⁾
 - ① 조선창악보(1948.7)
 - 평시조
 - 사설시조(주심시조)
 - 반각시조
 - 여창질림
 - 남창질림
 - ② 국악보(1955.11)
 - 영제와 완제를 더 세분한 다음 여러 가지 곡조를 소개하고 있다.
 - 영제 영제(영남지방제)
 - 반영제(영남 지방의 제에서 각 지방 보편적인 세를 겸한 것)
 - 완제 완제(완주지방제, 전주중심)

23) 유세기, 『시조창법』(문화당, 1957), 6-7쪽.

24) 장사훈, 앞의 책, 24쪽.

25) 위의 책, 24쪽.

남제(광주·나주지방제)

영제 靈制(영광·茂長지방제)

시조의 종류

평시조

사설시조

농시조

지름쥬음

굿거리시조 등

③ 증보주해 선율선 시조보²⁶⁾

평시조

사설시조

반각시조

남창질음

여창질음

반질음

은질음

중허리

사설질음

쥬음질음

각시조

우시조

우조질음

편시조(정경태 편곡)

편사설시조

편질음남창

편질음녀창

굿거리시조

굿거리사설

시창

16) 이창배 편 한국가창대계²⁷⁾

평시조

남창지름시조

26) 석암 정경태, 『증보주해선율선 시조창』(신우문화사, 1970)

27) 정춘자, 앞의 책, 140-146쪽.

여창지름시조
사설시조
사설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
우조시조

17) 국립국악원국악전집시조²⁸⁾

평시조
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사설시조
사설지름시조
중거지름시조
반각시조
반사설시조
중허리시조
각시조
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
휘모리시조
온지름시조

18) 박기옥 편보²⁹⁾

평시조
사설시조
반각시조
여창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온지름시조
우조시조
중거(중허리)시조
각시조
우조지름시조

28) 위의 책, 140-160쪽.

29) 박기옥, 『시조악보』, 1984.

- 엮음지름시조
 관산음마
 19) 한양수³⁰⁾
 평시조
 사설시조
 반각시조
 농시조(엇시조)
 반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중허리시조
 각시조
 질음엮음시조
 우시조
 우주지름시조
 20) 장사훈³¹⁾
 평시조
 중허리시조(중거시조)
 지름시조(두거시조)
 여창지름시조
 엇시조(엇·언시조)
 엇엮음시조(엇편·언편시조)
 엮음시조(편·사설시조)
 21) 문현³²⁾
 평시조
 중허리시조
 남창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사설시조(주심시조)
 반사설시조

30) 한양수, 『국악연구』, 12쪽.

31) 장사훈, 『국악총론』(세광출판사, 1985), 484쪽

32) 문현, 앞의 책, 373-387쪽.

각시조
 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수잡가(사설엮음지름시조, 엮음지름시조, 휘모리시조)
 곳거리시조
 파연곡시조
 좁는 평시조
 온지름시조

위 분류는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언급한 동시조, 이표음와 동시조, 이명칭, 문인창까지 포함한 모든 시조의 명칭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려 67여 가지나 된다.

각시조, 관산용마, 곰보타령, 곳거리사설, 곳거리시조, 기생타령, 남창지름시조, 남창질림시조, 남창질음시조, 남창평질음시조, 농시조, 두거리시조, 반각시조, 반사설시조, 반시조반잡가, 반지름시조, 반질음시조, 병정타령, 사설시조, 사설엮음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사설질음시조, 삼수시조, 생매잡아, 수잡가, 시창, 언시조, 언편시조, 언시조, 엇시조, 엇편시조, 엇엮음시조, 여창 지름시조, 여창질림시조, 여창질음시조, 여창질음시조, 엮음시조, 엮음지름시조, 엮음질음시조, 온지름시조, 온질음시조, 우시조, 우조시조, 우조지름시조, 우조질음시조, 우조평시조, 우평시조, 잡가, 좁는 평시조, 주심시조, 중거시조, 중거지름시조, 중허리시조, 중허리 지름시조, 주심시조, 지름시조, 지름엮음 시조, 질음엮음시조, 파연곡시조, 편시조, 편사설시조, 편질음남창, 편질음녀창, 평시조, 평시조, 평거시조, 평지름시조, 향제평시조, 휘모리시조

3. 명칭 처리

1) 동시조 이표음의 처리

동시조 이표음과 동시조 이명칭의 처리이다. 시조 종류의 체계화를 위한 명칭의 통일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동시조이면서 이표음은 '지름'과 '질음'의 표기와 '엇', '얼'의 표음처리이다.

지름시조는 처음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부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동사 '지르다'의 명사형은 '질음'이고 표음은 '지름'이다. 한자로는 '叱音'으로 쓰기도 한다. '질음'은 '지르다'의 명사형이고 '지름'은 '질음'의 표음이다. 한자음 '叱音'은 '지르다'의 명사형 '질음'을 한자어로 표기했다. '꾸짖을 질'자를 쓴 것은 꾸짖으면 목소리를 질러야하는 데서 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질음', '질림', '지름' 등이 표음 위주 '지름'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다.

'엇시조'는 '어(於)자 밑에 '꾸짖을 질(叱)자를 써서 '엇(鹵)'으로 썼다. '얼'의 '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하면 'ㄱ, ㅋ, ㆁ, ㄷ' 등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ㄷ'음으로 바뀐다. 이것이 혼동되어 쓴 것으로 보인다. '엇시조'의 표기가 옳다.

같은 시조이면서 잘못 표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올바른 표기는 왼쪽이고 틀린 표기는 오른쪽이다.

남창지름시조 : 남창질림시조, 남창질음시조
반지름시조 : 반질음시조
사설지름시조 : 사설질음시조
엇시조 : 얼시조
유희지름시조 : 유희질음시조
지름유희시조 : 질음유희시조
여창지름시조 : 여창질림시조, 여창질음시조
온지름시조 : 온질음시조
우조지름시조 : 우조질음시조

2) 동시조 이명칭의 처리

평시조는 가장 먼저 정립된 시조의 기본 형태이다. 평시조의 이 명칭

으로는 평거시조, 향제 평시조가 있다. 지역에 따라 경제 평시조와 향제 평시조³³⁾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같은 평시조로 이 명칭들이다.

평시조=평거시조, 향제평시조, 경제평시조

중거시조는 중허리시조의 이칭이다. 가곡에서 가운데를 든다는 의미를 가진 증거와 상통한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허리 시조는 가곡 증거의 형태를 본받아 평시조에서 변형된 시조창이다.³⁴⁾ 이 시조창은 중장 중간 짚에 높은 음이 있는 것 외에는 초·종장은 평시조의 가락과 거의 같다. 가운데를 든다는 가곡의 증거 형식에서 그 명칭과 형식을 따다.

중허리 시조=중거시조

우시조, 우평시조, 우조평시조, 우평시조는 우조시조의 이명칭들이다.³⁵⁾ 보통 우조시조로 통용되고 있다.

우조 시조는 계면조의 평시조에 우조적인 가락을 군데 군데 삽입한 시조로 평시조 계열에 속한다. 가곡의 우조풍 가락을 시조 본연의 계면조 가락에 섞어 부르는 시조창법의 하나인데 주로 서울우대, 유각골(樓上洞·樓下洞) 일대의 가객들 사이에서 즐겨 불리우던 곡이다.³⁶⁾

33) 이주환은 평시조를 하위 분류로 중허리시조, 향제 평시조, 우조시조로 나누고 있다.

34) 한국 사전 연구사,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이주환, 앞의 책, 13쪽.

35) 김귀식은 우조시조를 우평시조로 김호성의 『시조창백선』에서는 우조평시조, 한양수 편보에는 우시조라 명명하고 있다.

36) 김호성, 앞의 책, 93쪽. 김호성은 우조시조를 우조평시조와 우조지름시조로 구분하고 있다.

우조시조=우시조, 우조평시조, 우평시조

파연곡은 잔치가 끝날 때 부르는 시조창이다. 이문언 전창의 시조를 장사훈이 그의 저서 『시조음악론』 부록편에 실었고 이를 이양교가 그의 『십이가사전』에 수록하여 오늘에 재현하게 되었다. 전체 선율이 평시조 곡조로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술에 취하여 흥에 겨워 탈선하듯 자유스러운 가락으로 부르게 되어있다. 특히 첫부분은 여창 가곡의 ‘복두 칠성’으로 시작하는 평풍의 가락과 흡사하다.³⁷⁾ 선율 자체가 평시조 곡조이기 때문에 평시조 계열로 보아야할 것이다

파연곡

지름시조는 가곡 두거, 언락, 언편³⁸⁾의 창조를 본받아 평시조에서 변형시킨 시조창이다. 두거시조와 삼수시조는 지름시조의 이명칭이다. 두거시조³⁹⁾는 가곡 두거의 창조를 본받은 시조창으로 머리를 높이 드러낸다는 뜻으로 지름시조를 두거 시조라 했고, 삼수시조⁴⁰⁾는 가곡의 삼수대엽과 같이 청음을 높이 드러내기 때문에 지름시조를 그렇게 부른 것이다. 평시조 다음으로 생겼으며 『삼죽금보』에서는 소이시조라고 했다. 지름은 말 그대로 지른다는 뜻으로 초장의 첫째·둘째 장단을 높은 소리로 질러서 부르며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와 같다.

37) 문헌, 앞의 책, 387쪽.

38) 가곡에서 ‘언’자가 들어가는 곡조는 모두 처음을 높은 음으로 시작한다. 원래 ‘언(言)’자 대신 ‘어(於)’자 밑에 ‘꾸짚을 질(叱)’자를 써서 ‘엇(醜)’자로 쓰였다. 또한 언락, 언편 등의 곡조를 각가 열락, 열편 등으로 읽는다고 해서 ‘열(𪛗)’자를 썼으나, 현재는 한자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言’자를 쓰고 있다. 문헌, 앞의 책, 391쪽.

39) 장사훈, 『국악총론』, 484쪽.

40)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 편 조선아악대요(朝鮮雅樂大要), 함화진 편 증보 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전통음악 연구회출판한국음악4집과 국립국악원 국악전집시조, 홍원기 시조보, 김기수 시조보에는 중거지름시조의 명칭이 보인다. 중거 지름시조와 중허리 지름시조는 같은 명칭이다. 이 시조는 처음부터 청태 주로 소리를 질러댄다. 처음부터 질러대는 지름시조이다. 중거지름시조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⁴¹⁾

평지름시조는 남창 지름시조의 이명칭이다.⁴²⁾ 남창 지름시조, 지름시조, 평지름시조도 같은 곡을 다르게 명칭을 붙인 것들도 보인다.⁴³⁾ 남창 평지름 시조는 김귀식의 악보에 보인다.⁴⁴⁾ 평지름 시조에 남창의 명칭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평지름 시조, 남창 평지름 시조는 일반적인 명칭 남창지름시조의 이명칭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거시조, 삼수시조, 중허리지름시조, 중거지름시조는 통상 쓰고 있는 지름시조로 씀이 좋을 듯하다.

지름시조=두거시조, 삼수시조, 중허리지름시조, 중거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평지름시조, 남창평지름시조

여창 지름시조와 온지름시조는 다른 이칭이 없다. 남창 지름시조는 처음부터 높은 통목으로 가성 창법없이 부르는 반면에 여창 지름시조는 처음에는 평시조처럼 평평한 음으로 시작하다 둘째 구에서부터 속청으로 높은 음을 뽑아낸다. 온지름시조는 최근에 만들어진 시조이다. 지름시조가 초장만을 높은 음으로 질러 부를 뿐이고 중장 이하에서는 평으로 부르는 것에서 탈피하여 중장과 종장에도 지르는 가락으로 꾸

41) 정춘자, 앞의 책, 160쪽, 악보제시

42) 이주환, 앞의 책, 10쪽.

43) 정춘자, 앞의 책, 146쪽, 167쪽 참조.

44) 김귀식은 남창평질음과 남창질음시조를 악보로만 구분했을 뿐 이에 대한 해설이 없다. 남창평질음의 명칭은 어느 악보에도 보이지 않는다. 남창지름시조의 이칭으로 통일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 시조이다. 이양교와 정경태가 만든 시조가 있는데 이 두 명인의 가락은 서로 다르다.⁴⁵⁾ 외에 정경태의 반지름시조가 있다.

여창지름시조
은지름시조
반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는 가곡의 우조풍 가락을 섞어부르는 시조창의 하나이다. 평시조 계열의 우조시조와 지름시조계열의 우조지름시조는 기관(妓版)시조로는 불리지 않았고 우대(지금의 누상동) 소리꾼에 의해 불려졌던 시조이다. 우조시조에서와 같이 계면조에 의한 지름시조의 각 장에 평조의 하나인 우조가락을 섞어부른다.⁴⁶⁾ 지름시조에 우조가락이 섞여있어 가락이 다양하고 우아하고 깊은 맛이 있다. 이 우조지름시조는 칠언율시로 이루어진 한시만을 가사로 삼는다. 별다른 이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조지름시조

장사훈은 옛시조를 사설지름시조의 계열이거나 사설지름시조로 보았다.⁴⁷⁾ 옛시조를 '순수창법+이질적인 창법'과 '지르는 형태'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⁴⁸⁾ 임기준 전창의 사설지름시조는 그 음악적인 형태로 보아 '옛시조'라 할 수 있다.⁴⁹⁾

국어국문학자료 사전에는 옛시조, 사설지름시조, 농시조를 같은 명칭으로 보고 있다. 농시조는 고시조집에는 옛시조가 '농' 또는 '옛농'이란

45) 문헌, 앞의 책, 393쪽.

46)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참조.

47) 장사훈, 『국악총론』, 484쪽.

48) 장사훈, 위의 책, 480쪽.

49) 장사훈, 『시조음악론』, 33쪽.

명칭으로 적혀있다. 농은 정조에 대한 변조를 뜻한다.⁵⁰⁾ 순수한 것에 잡것들이 섞여있는 것을 말한다. 한양수는 농시조를 엇시조의 이명칭이라고 했고⁵¹⁾ 리태극은 농시조가 사설지름시조의 이명칭으로 보았다.⁵²⁾ 유세기⁵³⁾ 와 정경태,⁵⁴⁾ 장사훈⁵⁵⁾은 엇시조를 사설지름시조의 명칭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본다면 엇시조, 농시조⁵⁶⁾, 사설지름시조는 동시조 이명칭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엮음’은 ‘編’으로서 시조에 있어서의 ‘辭說’, ‘주심’, ‘捨’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엮음지름시조와 사설지름시조는 동시조 이명칭이다. 정경태는 이를 ‘지름엮음’으로 말만 뒤바꾸어놓았다.⁵⁷⁾ 그러나 사설지름시조와 지름엮음시조를 따로 분류한 것도 있다.⁵⁸⁾ 분류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같은 사설지름시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설지름시조=엇시조, 농시조, 엮음지름시조, 지름엮음시조, 언시조, 사설엮음지름시조

50)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한국사전 연구사, 2002), 1954쪽.

51) 한양수, 『국악연구』, 12쪽.

52) 리태극, 앞의 책, 76-77쪽.

53) 유세기, 앞의 책, 6-7쪽.

54) 정경태 ②국악보(1955.11).

55) 장사훈, 『국악총론』, 484쪽.

56) 농시조는 초장과 종장이 평시조이고 중장이 사설시조형인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반각시조의 계열로도 볼 수도 있다. 초장이 평시조이고 종장이 사설시조형이고, 초장이 사설시조형이고 종장이 평시조인 경우가 반각시조라면 초장, 종장이 평시조이고 중장이 사설시조형이라면 농시조도 반각시조에 해당된다고 보아진다. 음악적인 형태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형식상으로 보면 반각시조 형태이다. 그렇다면 농시조가 사설시조 계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한다.

문현, 앞의 책, 394쪽.

57) 정경태 ②국악보(1955.11).

58) 김호성, 앞의 책.

문현은 수잡가가 넓은 의미에서 사설지름시조에 포함되고 '사설억음 지름시조', '억음지름시조', '휘모리시조'⁵⁹⁾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고 했다.⁶⁰⁾ 여기에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억음은 사설과 같은 용어이다. 용어의 뜻으로 볼 때 사설지름시조와 억음지름시조는 같다. 그러면 억음지름시조나 사설억음지름시조가 같으면 같은 것이지 어째서 사설지름시조의 계열일 수 있는가. 그리고 사설억음지름시조는 사설사설지름시조를 반복해서 쓴 말에 다름 아니다. 별 생각없이 창작자들이 붙인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되어야 용어간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위의 논리라면 수잡가는 넓은 의미에서 사설지름시조의 계열이지 사설지름시조는 아니다. 사설지름시조와 수잡가는 다르다. 사설지름시조는 엇시조이고 수잡가는 반시조반잡가⁶¹⁾인 엇억음시조⁶²⁾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잡가는 휘모리시조 혹은 엇억음 시조로 명칭을 통일해야 바른 용어 사용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언급한 사설억음지름시조는 억음지름시조에 사설을 덧붙였다. 사설에 억음이 덧붙여졌다해도 변창법 '엇'이 덧붙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지름시조이지 수잡가 형태는 아니다. 정경태의 시조에는 사설지름시조와 억음지름시조를 다른 시조로 분류해놓았다. 서로 선율이 다르다. 사설과 억음의 용어를 달리 해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경태의 억음지름시조는 수잡가에 해당되지

59) 김정배보에는 휘몰이시조(수잡가)로 되어 있다. 정경태 시조보, 김호성편 정선가곡보에는 억음지름으로 전통음악연구회출판 한국음악 제4집에는 휘모리시조, 이주환의 시조창 연구, 이창배편 한국가창대계, 김기수편 월하정가선에는 사설지름시조로 되어 있다. 정춘자, 앞의 책, 146쪽 참조, 석암제도 사설지름시조로 되어 있다.

60) 문현, 앞의 책, 376쪽.

61) 리태극, 앞의 책, 76쪽. 사설지름시조가 반은 시조이고 반은 잡가의 가락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른 명칭이다.

62) 장사훈, 『국악총론』, 484쪽.

사설지름시조는 아니다.

수잡가=휘몰이시조, 엇췌음시조, 언편, 엇편시조, 반시조반잡가

사설시조의 계열로 반사설시조는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섞인 시조를 말한다. 각은 5각 5각 4각으로 평시조와 같다. 정경태는 이를 반각시조라 불렀으며 이 반각시조는 초장이 평시조이고 종장이 사설시조형인 선반각시조와 초장이 사설시조이고 종장이 평시조형인 후반각시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국문학에서는 이를 엇시조라 지칭하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엇’의 개념을 ‘어리중간, 얼치기’등 음악적으로 해석하여 여러 종류의 시조 가락이 섞여있는 사설지름시조의 계열로 보고 있다.⁶³⁾ 전자는 문학적으로, 후자는 음악적으로 해석하여 개념의 한계가 불분명하게 된 것이다.⁶⁴⁾ 개념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음악적으로 보면 반사설 시조는 사설시조의 계열이고 엇시조는 사설지름시조의 계열로 보아야할 것이다.

반사설시조=반각시조(선반각시조, 후반각시조)

각시조는 이명칭이 없다. 각시조는 시조 창중 특수한 창법을 갖고 있다. 사설시조와는 달리 가사의 길이에 따라 장단에도 신축성을 가진다. 음악적으로는 평시조에서처럼 평성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중장 중간 부분에서는 높은 음으로 질러낸다. 이 선율형은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의 각각 초장 중간 부분의 선율형과 같다.⁶⁵⁾ 초장과 종장은 대체

63) 문현, 앞의 책, 394쪽.

64) 사설시조와 엇시조는 음악적인 명칭이지 문학적인 명칭은 아니다. 사설시조와 엇시조의 문학적 명칭은 장시조, 중시조라야 옳다.

신웅순, 『현대시조시학』, 99쪽.

로 평시조형이고 증장은 지름시조형이며 작은 증장, 종장 등에서 늘어난다. 향제의 경우 증장에서 5.8, 5.8의 4각이 더 늘어난다. 각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중허리 시조 형태를 띠고 있고 선율은 평시조형에 가깝다.

각시조

주심시조는 130자 정도 이상의 잣수를 가진 사설시조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이를 알고 분리하여 명명하는 이는 거의 없다.⁶⁶⁾ 좁는 평시조와 좁는 시조 그리고 주심 시조, 주슴 시조는 사설시조의 일종으로 같은 사설시조의 이명칭인지는 정확히 고증하기 어렵다. 사설시조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시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심시조

좁는 평시조는 이문원 전창의 좁는 평시조를 이주환이 채보 이를 장 사훈이 그의 저서 『시조음악론』 부록편에 실었고 이를 이양교가 그의 『십이가사전』에 수록하여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좁는다’는 ‘쥘는다’의 뜻으로 평시조적이면서 사설적인 시조라는 뜻이다. 사설시조의 하나로 봄이 좋을 듯하다.⁶⁷⁾

좁는 평시조

65) 문현, 앞의 책, 376쪽.

66) 문현, 위의 책, 392쪽.

67) 문현, 앞의 책, 383쪽.

좁는 시조는 서울지방에서 불리우던 사설시조의 하나.
정춘자, 앞의 책, 141쪽.

다음은 이명칭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동시조 이명칭을 일반적인 명칭으로 표기한 것과 동시조 이표음을 뺀 시조를 정리한 것이다.

각시조

굿거리 사설

굿거리 시조

남창지름시조=남창평질음시조, 평지름시조

반사설시조=반각시조

반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엇시조=농시조=위음지름시조=지름위음 시조=언시조=사
설위음시름시조

수잡가=엇위음시조=휘모리시조=언편시조=엇편시조=반시조반잡가

사설시조=위음시조=편시조⁶⁸⁾

지름시조=두거시조삼=삼수시조=중거지름시조=중허리 지름시조

여창 지름시조

온지름시조

우조시조=우시조=우조평시조=우평시조

우조지름시조

좁는 평시조

주심시조

중허리시조=중거시조

파연곡시조

평시조=평거시조=향제평시조

3) 특수 시조창의 명칭 처리

관산음마와 시창은 문인창으로 시조창과 함께 악보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시조창이 아니므로 시조 분류에서 제외했다. 또한 휘몰이 잡가, 곱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생매잡아⁶⁹⁾ 등은 시조 창법의 흔적

68) 이 편시조는 정경태는 공박을 뺀 3점 3박으로 된 시조이다. 청소년 학생에게 보급코자 템포 짧은 편시조를 소개한 것으로 편(위음, 사설)의 용어와 다른 용어로 사용되었다.

극히 일부만 간직하고 있어 시조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도 시조의 분류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편시조, 편사설시조, 편지름남창시조, 편지름녀창시조는 정경태 시조보에만 보인다. 이 시조는 정경태 시조보 차례 ‘이 악보의 특징’에 ‘청소년 학생에게 보급코자 템포 짧은 편시조(공박을 뺀 3점 3박, 5점 5박 장단) 4곡을 소개하여 어린이들도 차차 취미를 얻어 동요처럼 부르도록 한 것’이라고 써여져 있다. 이 시조는 5,8박 대신 3,5박으로 되어 있어 템포가 빠르다.⁷⁰⁾ 장단이 달라 정격 시조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도 일반적인 시조창은 아닐 뿐더러 불리워지지도 않아 시조 분류에서 제외했다.

굿거리 시조, 굿거리 사설은 민요에서 사용하는 굿거리 장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평탄하게 부르면서 많은 사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설시조 계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경태는 이를 시조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시조는 아니다. 논의가 필요하다.

사설시조 계열로 주심시조라는 것도 있는데 130자 정도 이상의 잣수를 가진 사설시조이다. 이를 알고 분리하여 명명하는 이는 거의 없다. 사설시조 계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시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류에서 제외된 명칭은 다음과 같다.

69) 휘모리 잡가라하여 「곰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생매잡아」은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휘모리조로 부르다가 끝머리의(시조로서는 종장을 첫구로 볼 수 있는) ‘그 중에’, ‘우리도’, ‘그 기생’, ‘동자야’ 만을 평시조 종장 첫장단과 같이 부르며 또 끝을 맺는 마지막 박자를 평시조 끝과 같이 부르는 시조창과 연관이 있는 잡가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주환, 앞의 책, 18쪽.

70) 정경태 증보주해선율선의 편시조의 하위분류.

관산용마, 시창, 휘모리 잡가, 곱보타령, 병정타령, 기생타령, 생매잡아, 편시조, 편사설시조, 편지름시조, 굿거리시조, 굿거리 사설, 주심시조

4. 창법상의 분류

시조 연구가들에 따라 상이한 분류를 가지고 있으나 구본혁은 평시조와 평시조의 파생인 지름시조와 지름시조의 파생인 사설시조로 분류하여 이 3자가 시조창의 중심이 된다⁷¹⁾고 하였으며, 이태극은 보통 창법상에는 평시조·중허리시조·지름시조·사설시조 등으로 4대별할 수 있다⁷²⁾고 했다. 이주환은 원곡 외에 원곡과 같은 음조로서 머리를 들어 고음으로 들어내는 지름시조와 많은 사설을 용납하는 자진곡조(위음)인 사설시조가 각각 파생되어 이것이 시조의 중심이 된다⁷³⁾고 했다. 김기수는 창법상의 종류에는 평시조·지름시조·사설시조로 대별된다⁷⁴⁾고 했다.

언급한 시조 창법은 평탄하게 부르고, 높여서 부르고, 촘촘히 엮어서 부르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평시조는 평탄하게 부르고 지름시조는 초장을 드러내어 부르고 사설시조는 촘촘한 가락으로 엮어부른다.

언급한 고악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00년 경에 처음 평평하게 부르는 시조 지금의 평시조가 생겼고 고종 원년에 1876년 경 현 초장을 질러부르는 지름시조인 소이시조가 생겼다.

그러면 향제에서 부른 사설시조는 어제쫓 생겨 시조의 한 줄기를 형성했는가.

지름시조는 가곡의 두거의 창법을 본받은 곡이고 평시조는 가곡의

71) 구본혁, 앞의 책, 27쪽.

72) 리태극, 위의 책, 75쪽.

73) 이주환, 앞의 책, 6쪽.

74) 김기수, 앞의 책, 190쪽.

평거와 사설시조는 가곡의 편수대엽과 비교될 수 있다.⁷⁵⁾고 했다. 이양교에 의하면 사설시조는 120년 전부터 불리워졌고 지방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⁷⁶⁾ 고악보에는 사설시조가 기보되어 있지 않아 확실한 연대 산정은 어렵다. 1864년 소이시조 기보 당시 사설시조의 기보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연대상, 창법상 대표격으로의 평시조·지름시조·사설시조의 3분류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초·중·종장을 평탄하게 부름-평시조
- 초장을 드러내어 부름-지름시조
- 리듬을 촘촘히 엮어 부름-사설시조

1) 평시조 계열

평시조는 시조의 원형, 정격 시조이다. 원래는 시조였던 것이 소이시조가 생긴 이후부터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평시조라 불렀다. 전체를 평탄하게 부르는 시조로 평시조, 중허리 시조, 우조시조, 파연곡을 들 수 있다. 평시조에 평거시조, 향제 평시조, 경제 평시조 등이 있으나 동시조 이명칭들이다. 평시조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허리 시조는 중장 중간 부분에서 높은 음이 있는 것 외에 초·종장은 평시조의 가락과 거의 흡사하다. 가곡의 증거 형식에서 그 명칭과 형식을 따다. 증거시조의 이명칭이 있으나 통상 중허리 시조로 부른다.

우조 시조는 계면조의 평시조에 우조 가락을 삽입한 시조로 평시조 계열에 속한다. 우시조, 우조평시조, 우평시조 등의 명칭이 있으나 보통 우조시조로 통용되고 있다.

75) 장사훈, 위의 책, 484쪽.

76) 이양교, 앞의 책, 19쪽.

파연곡은 잔치가 끝날 때 부르는 시조창이다. 평룡의 가락과 흡사하며 선율 자체가 평시조 곡으로 평시조 계열에 속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시조 계열 : 평시조, 중허리 시조, 우조시조, 파연곡

2) 지름시조 계열

지름시조는 가곡의 두거, 삼수대엽 창법을 모방하여 변조시킨 곡으로 두거·삼수시조라고도 한다. 초장의 첫째, 둘째 장단을 높은 음으로 질러대고 중·종장은 평시조 가락과 같다. 지름시조에는 특히 이명칭들이 많다.

지름시조를 두거, 삼수 시조 외에 중허리지름시조 중거지름시조 등의 명칭이 있다. 처음부터 청태주로 소리를 질러대는 지름시조이다. 중허리·중거지름시조의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 이를 통칭 지름시조로 불러야 할 것이다.

남창 지름시조도 평지름시조이니 남창평지름시조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도 남창 지름시조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외에 정경태의 반지름시조가 있다. 여창 지름시조는 별다른 이명칭이 없다. 최근에 만들어진 초장만이 아닌 중·종장도 지르는 가락으로 꾸며진 온지름시조도 있다.

우조지름시조는 가곡의 우조풍 가락을 섞어부르는 지름시조로 계면조에 의한 지름시조의 각 장에 평조의 하나인 우조가락을 섞어부른다. 별다른 이칭이 없다.

사설지름시조는 초장 초입을 남창 지름시조에서와 같이 통목으로 높은 음을 질러 시작하고 하고 중·종장에 리듬을 촘촘하게 엮어 부르나 곡마다 선율과 장단형이 조금씩 다르다. 이명칭으로 엇시조, 농시조, 율

음지름시조, 지름엮음시조, 언시조, 사설엮음지름시조 등이 있다. 논자의 이견이 다소 있기는 하나 용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설지름시조로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사설지름시조 계열에 엮엮음시조인 수잡가가 있다. 처음에는 지름시조와 같이 부르다가 중간에서 요성 자리가 서도 소리와 같이 중간음인 중려로 옮겨지고 다시 잡가조로 바뀌었다가 다시 시조 장단의 시조 창법으로 되돌아간다. 휘몰이시조, 엮엮음시조, 언편, 엮편시조, 반시조 잡가반 등의 이명칭이 있다. 수잡가라는 명칭도 무리는 없으나 세마치의 빠른 장단으로 엮어가는 시조라는 뜻에서 휘몰이 시조로 통일함이 좋을 듯하다.

지름시조 계열 : 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반지름시조, 온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휘몰이 시조

3) 사설시조 계열

평시조나 지름시조는 대개가 단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설시조는 긴 자수의 장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가곡에 있어서의 '편', 잡가에 있어서의 '엮음', '자진'과 같은 형식에 비길 수 있는 시조창의 종류로 장단은 평시조의 틀로 구성되어 있고 평시조와는 달리 한 박에 자수가 많은 리듬을 촘촘하게 엮어 부른다.⁷⁷⁾ 시조창의 한 가지로 엮음시조·편시조·주슴시조·습시조·좁는시조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특히 사설시조 중 130자 이상의 시조를 '주심시조'라 하여 그 명칭을 구분하기도 한다. 음악적으로는 향재 평시조의 선율형과 비슷하다.⁷⁸⁾

반사설시조는 사설시조의 파생곡으로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섞인 시

77) 신용순, 앞의 책, 30쪽.

78) 문현, 앞의 책, 375쪽.

조를 말한다. 사설시조보다는 글자수가 적고 평시조보다는 자수가 많다. 정경태는 이를 반각시조라 불렀으며 초장이 평시조이고 종장이 사설시조형인 선반각시조와 초장이 사설시조이고 종장이 평시조형인 후반각시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각시조는 특수한 창법으로 가사의 길이에 따라 장단에 신축성을 갖고 있다.

초장과 종장은 대체로 평시조형이고 중장은 지름시조형이다. 작은 중장, 종장 등에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율은 중허리시조 형태를 띠고 있다. 장단이 평시조나 지름시조 틀로 구성되어있으나 리듬을 촘촘히 엮어붙여야하기 때문에 사설시조 계열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경태는 반사설시조를 반각시조라 지칭하고 있다. 반각은 '장단 용어의 하나로 한 장단의 절반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경태의 반각시조는 초·중·종장이 5·5·4각이다. 그러나 각시조는 초·중·종장이 5·9·4각이다. 중장에서만 거의 2배로 늘어났다.

반각시조는 사설시조의 시조 초·중·종장이 5·5·4각이 지켜지고 있지만 각시조는 사설시조의 각을 벗어난다. 그러나 리듬이 촘촘하고 중장이 지름시조 선율이고 초장과 종장이 평시조 선율이라 해도 이를 중허리시조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 비록 작은 늘어나지만 촘촘히 가락을 엮어가는 것으로 보아 사설시조 계열로 봄이 좋을 듯하다. 각시조의 명칭 재고는 다소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외에 좁은 평시조가 있다. 평시조적이며 사설적인 시조이다.

사설시조 계열 : 사설시조, 반사설시조, 각시조, 좁은 평시조

Ⅲ.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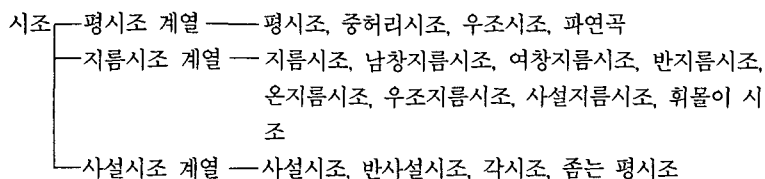
고악보의 검증은 현행 시조의 종류의 기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평시조와 소이시조(지름시조) 기록이 보였다. 그리고 기존 시조 분류 이론 검토는 지금까지의 시조 분류의 번다로 인해 혼용되고 있는 이명칭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7여 가지나 되었다. 이를 동시조 이음표 처리와 동시조 이명칭 처리 그리고 특수 시조창 명칭 처리의 여과 과정을 거쳤다. 평시조, 중허리시조, 우조시조, 파연곡, 지름시조, 남창지름시조, 여창지름시조, 반지름시조, 온지름시조, 우조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 휘몰이시조, 사설시조, 반사설시조, 각시조, 좁은 평시조 등 16가지 명칭으로 잠정 확정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도에 불과하지 뚜렷한 원칙이나 논리에 의거, 처리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문학상으로도 고려해야겠지만 음악상으로도 가락의 특성과 함께 경제, 향제를 고려한 가운데 가곡과도 연계하여 다양하게 고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진한 것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먼저 일반적인 명칭으로 통일하여 시조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창법상의 분류를 크게 3대별하면 평시조 계열, 지름시조 계열, 사설시조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언급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몇가지 문제들이 처리되어야한다. 같은 시조이면서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시조의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와 같은 종류의 시조창이 서로 섞였을 경우 어디의 계열에 둘 것인가의 원칙 문제이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종류이면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경우의 명칭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은 개념 확정을 거쳐 원칙을 세우고 고악보와 기존 이론과의 연계, 가곡과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배자, 형태, 음계, 타장르와의 영향 관계 등 적지 않은 작업들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이론 축척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시조창 이론의 일천으로 차후의 논문들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혁, 『시조가악론』, 정민사, 1988.
 국어국문학사전, 한국사전 연구사, 2002.
 김경배, 『시조악보』, 월하문화재단, 1988.
 김귀식, 『알기쉬운시조창』, 집문당, 2000.
 김기수 편저, 『정가집』, 은하출판사, 1990.
 김호성, 『시조창 100선』, 수서원, 2002.
 리태극, 『시조개론』, 반도출판사, 1992.
 문 현, 『음악으로 알아보는 시조』, 민속원, 2004.
 박기욱, 『시조악보』, 1984.
 석암 정경태, 『증보주해선율선 시조창』, 신우문화사, 1970.
 신용순, 『현대시조시학』, 문경출판사, 2001.
 _____, 『시조분류고』, 한국문예비평학회 제15집, 2004.
 유세기, 『시조창법』, 문화당, 1957.
 이양교 편저, 『시조창보』, 현대문학사, 1994.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 편 조선아악대요(朝鮮雅樂大要).
 이주환, 『시조창의 연구』, 시조연구회, 1963.
 장사훈, 『국악총론장』, 세광출판사, 1985.

- _____, 『시조음악론』, 서울대출판부, 1986.
정춘자, “시조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4호.
한양수, 『국악연구』.
함화진 편 증보가곡원류(增補歌曲源流).
홍원기, 『남녀창가곡보』, 민속원, 2001.

<Abstract>

Research on Classifying the “Sijochang”, or Korean Ode Narrative Song

Shin Woong-Soon

This Research is about the classification of “Sijochang”, or the Korean ode narrative song, in terms of music. Contrary to the literature classification by the number of letters, sijochang varies with the melody. Literally, the classification is generally made as Dansijo(or short ode) Jungsijo(or medium ode) and Jangsijo(or lengthy ode) but the sijochang is normally divided into “Pyongsijo”(or plain ode), “Jirumsijo and Saseolsijo”.

As while the same Sijochang is called under the different names, the different type of sijochang is also called as the same name, it needs the discussion about its name. Some Korean classical musicians have attempted to define it but they are trying to do it without the specific reasoning about its concept. As a result, the systematic research is required.

This study designs to streamline the currently confusing and complex names and set up the sijo's classification system.

After reviewing the ancient music note, current sijo score and the traditional theory, I largely classified it into 3 types: Pyongsijo, Jirumsijo and Saseolsijo. And then, I analyzed on to which type the sijochang which is presently called belongs, based on several principles.

The 67 names of the sijo which I have investigated about are classified with them sharply reduced into 16. Among the current sijo names, there are some which are of same type yet of different phonetics and there are others which are of different phonetics yet of same type. To avoid such complex and troublesome names, I have orchestrated them as follows, taking the literary and music concept into account.

- 1) Pyongsijo type : Pyongsijo, Joongherisijo, Wujosijo and Payeonkok
- 2) Jirumsijo type: Jirumsiro, Namchangjirumsijo(it refers to Jirumsijo sung by male), Yeochangjirumsijo(it refers to Jirumsijo sung by female), Banjirumsijo(it refers to half the Jirumsiro), Onjirumsijo (it refers to the whole Jirumsijo), Wujojirumsijo, Saseoljirumsijo and Whimorisijo)
- 3) Saseolsijo type : Saseolsijo, Bansaseolsijo(it refers to half the Saseolsijo, Gaksijo or Pyongsiro)

There are still lots of things to musically streamline, in the fields of disposition of Sijo letters, its form, musical scale and influences on other genre, etc. and as such, the accumulation of theory on them is

urgently required. Those musical elements need an in-depth review and study by the experts and the Korean traditional musicians. Later research is expected to play a role of exploring it.

Keywords : Sijochang, Pyongsijo, Jirumsijo and Saseolsijo.

논문투고일 : 2005년 11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6년 1월 7일